

<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 >

로마서 8:25-28 / 새찬송가 347 (통일 382) 허락하신 새 땅에

1.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연약함이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사실 몸도 마음도 삶도 환경도 생태계도 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약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만 강고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믿음도 항상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고전10:12).

2. 우리 믿음의 연약함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롬8:25,26).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찬송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로 둘러싸인 우리는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쉽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즉 ‘믿음이 사라져 없어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믿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까닭에 생겨났습니다.

3.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연약한 믿음을 굳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고한 믿음이 되면 그 이상으로 강력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는 목판이 종이보다 강하나 종이 뒤에 철판을 덧붙이면 목판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해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므로 강력한 믿음이 되었습니다(롬4:18), (창15:4-6).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듯 즉 영상을 보듯 그려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세의 믿음도 강고하게 하셨습니다(히11:24-27).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강고한 신앙이 됩니다.

4.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롬8:26). 즉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때’를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시42:1,2).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이 ‘때’가 주를 만날 기회라고 했습니다(시32:6).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 이처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더불어 성령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였습니다(행10:1-5). 또 사도 베드로도 그 다음 날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행10:9-12). 2차 선교여행을 하던 바울도 그 행선지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도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행16:6-10).

<적용&실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완성되었다 혹은 이만하면 됐다 또 이만큼 믿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이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시다.